

3년3개월만에 승소했지만... 어민 잡는 정부

“3년 3개월 기다린 끝에 이겼나 싶었는데, 항소심도 하게 돼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 지 답답합니다.”

해남군 북평면 완도대교 주변에서 양식업·맨손어업을 하는 어민 72명으로 구성된 ‘구 완도대교철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최춘광(74) 위원장은 21일 정부의 완도대교 건설에 따른 양식장·맨손어업 피해보상(보상요구금액 29억원)에 대한 항소 얘기만 나오면 울화통이 터진다. 70이 훌쩍 넘은 나이인 탓에 대법원까지 가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목소리가 감지됐다. 그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03년 공사가 시작된 뒤 양식장에 흙탕물이 유입되고 조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양식업 또는 맨손어업을 포기한 어민들이 많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어업 보상을 해주지도 않더니, 손해배상 소송에 진 뒤에는 또다시 항소를 제기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상당수는 60~70대 영세 어업인들이



완도대교 건설 따른 어업피해 소송 법원 “29억원 보상하라” 판결
익산국토청은 “못 준다” 항소
어민들 “또 몇년 기다리라고” 분통

라 생계를 뒤로한 채 또 다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험거운 소송을 벌이는 것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어민들 입장이다. 대책위는 지난 2010년 9월 1일 손해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3년 완도대교 건설 과정에서 양식장·갯벌에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이 일대 어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보상 대상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사를 맡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시 여수대 수산과학연구소의 어업 피해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남지역을 피해보상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대책위는 완도대교 착공 이후 양식장·갯벌 어획량이 갈수록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보상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토부 등에 여러 차례 어업 보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책위는 소송에 들어갔고 3년 3개월간의 지리한 공방 끝에 지난해 12월 29억원 상당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가 진행된지 5개월째 접어들면서 어민들의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됐다. 몇 년 새 양식장·갯벌 어획량이 예년보다 40% 가량 감소해 인건비 조차 건지기 어려운데다, 2심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생계를 포기한 채 험거운 소송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

냐’는 분위기도 저지 않았다. 어민들은 지난 1심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실상 생계를 포기한 채 소송에 매달려 왔었다.

최씨는 “정부가 사실상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했다. 그는 “1심 때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집안에 돈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해 힘들어 하는 어민들이 많았다”면서 “(정부는) 2심에서 패소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계획인 것 같은데, 힘 없는 어민들만 불쌍할 뿐”이라고 말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정당한 연구결과에 따라 보상 절차를 적법하게 처리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상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 군외면과 해남군 남창면을 잇는 신(新) 완도대교(총 길이 332m)는 지난 2003년 착공된 뒤 지난해 완공됐다. 신 완도대교가 완공되면서 옛 완도대교는 철거됐다. /이종행기자 golee@/백희준 수습기자 bhj@



분주한 논밭이...여유로운 황로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둔 21일 광주시 서구 벽진동 들녘에서 한 농부가 논밭이 중인 가운데 황로가 먹이를 먹기 위해 줄지어 앉아 있다. /최현배기자 choi@

“한수원 4700만원 손해 소송 너무 소극적” 비난

한빛원전 가동중단에 주민 지원사업비 16억원 줄어

한빛(영광) 원전 5·6호기가 품질 보증서 위조 부품 교체 등으로 50일 넘게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쓰이는 지원사업비가 16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원전에 품질보증서를 위조한 부품을 공급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한전 KPS를 대상으로 4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을 고려하면 지역민들만 아무 잘못 없이 16억 여원을 손해본 셈이다. <광주일보 5월 20일자 6면> 21일 한수원과 영광군 등에 따르면 영광군은 올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95억80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받았다. 올해 지원사업비는 전년도 104억 600만

원에 비해 8억2600만원이 적은 금액으로, 5·6호기가 지난 2012년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각각 55일, 58일 가동을 중단한 게 지원금 감소의 가장 큰 이유라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지원사업비는 발전소 가동기간 중 발전량에 따라 계산해 결정되고 지원되는데 가동 중단 횟수가 많을수록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지원사업비도 줄어들게 된다. 영광군은 지난 2011년 104억 8000만원, 2012년 104억 4000만원, 2013년 104억 6000만원의 지원사업비를 받아 지역 공공시설 조성·장학금 지급·생활환경 개선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써왔지만 올해 지원사업비는 100억에도 못 미쳤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도 같은 이유로 8억 2600만원이 줄어들었다. 원전에 공급된 품질보증서 위조 부품 때문에 애꿎은 지역 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루 가동 중단 단에 따른 매출액(10억)을 고려하면 당시 매출액 감소도 1000억에 달했다는 게 한빛 원전민간감시기구 위원들의 설명이다. 영광군은 특히 2013년에도 사고로 가동 중단된 기간이 적지 않아 내년 지원사업비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광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지역민들의 불안감, 매출액 감소, 원전 신뢰성 상실 등을 고려하면 한수원의 조치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관피아’ 비리 척결

전국 지검에 특별수사본부

검찰이 이른바 ‘관(官)피아’로 대표되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민·관 유착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검찰은 또 공직 부패·민관 유착 비리와 관련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환수액을 범죄피해 회복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21일 오후 3시 대검 청사에서 전국 고·지검장과 대검 차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 공기업 등 공공기관 비리,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 유착 비리 등이다. 관피아 범죄와 관련해선 감독기관 공무원이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민간단체로 옮겨 후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감시·감독 체계를 무디게 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전직 고위 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기관장·대표이사·감사 등으로 취임해 정부의 감시·감독 기능을 약화시키는 ‘낙하산·전관예우 인사’도 포함된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304개) 비리 수사뿐만 아니라 정부 업무를 위탁 받아 대행하는 민간 협회·단체에 취임한 퇴직 관료의 비리에도 수사를 확대한다. 선박, 철도, 원전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인프라 분야의 비리가 최우선 수사 대상이다. /연향뉴스

광주교육청 학교급식 친환경김치? 알고보니 일반김치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친환경 김치’라고 공급한 김치가 사실은 일반 급식용 김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청은 친환경 급식 구입비로 1인당 200원(키니당)씩 추가 지원해 예산 낭비와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1일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 연합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친환경 우수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쌀·잡곡·채소류·

과실류·축산물·기타 친환경 우수식재료 5577여종을 구매했으며, 여기에 25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또 학생 1인당 17kg 당 200원씩 총 76억원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 구입비도 추가로 지원했다. 공동구매 우수 식재료에는 김치도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에 보낸 공문에 ‘김치 공동구매의 경우 친환경 김치가 공급된다’(2013년 4월),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김치는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공급한다’(2013년 9월)고 친환경김치를 명시, 강조했다.

하지만, 학교에 공급되는 김치 중 친환경 김치 인증을 받은 것은 한 건도 없고, 대부분 김치사업단 소속 업체들이 일반 배추와 재료를 사들여 김치를 담가 납품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많은 재료를 버무린 김치는 가공식품이어서 김치 자체를 친환경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문에 ‘친환경 김치’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추진 방향을 전달하면서 다소 욕심을 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호 기자 jwpark@

“딸 결혼한다” 속여 축의금 받아채권 압제 공무원



○...하지도 않는 딸의 결혼식을 빙자해 축의금을 받아 채권 공무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동료들에 의해 들롱 나면서 징계를 받을 처지.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청 공무원 A팀장은 “다가오는 25일 서울 강남의 한 결혼식장에서 큰딸 혼례를 치른다”며 동료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고, 시

청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도 글을 띄워 직원 50여명으로부터 수백만원의 축의금을 받아채겠다는 것. ○...“A팀장에게는 딸이 없고 혼례가 예정된 결혼식장도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동료에 의해 발각되자, A팀장은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때늦은 후회.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신축 원룸 (전대상대 2분 거리)

- 용봉지구, 미래도 APT 입구 코너
- 신축 4층, 룸 21개
- 1층 상가 2칸, 4층 고급주택
- 엘리베이터 완비, 전체 대리석 시공
- 월수입 900만원(년 1억800만)
- 매가 11억5천(보 1억, 웅 4억)

★신축 원룸 (전대후문 2분 거리)

- 흥중동, 신축 4층, 룸 12개
- 1층 점포 1칸, 원룸 10개, 4층 주택 1개
- 월수입 450만원, 매가 6억5천

★나주 이창동 원룸 (4층)

- 룸 19개, 월수익 570만
- 매가 4억2천(웅 1억, 보 3천만)

원룸,상가,오피스텔 매매 (주)대신 010-6670-9800

★수완지구 상가(3층)

- 신한은행 뒤, 모아엘가 APT 상가 맞은편
- 주위 6000세대 APT 밀집
- 4층 건물중 3층, 85P
- 월수익 200만(년 2400만 수익)
- 매가 3억5천(웅 2억5천, 보 3천)

★첨단지구 상가 2층, 62P

- 부영 APT 맞은편, 오션스파 2층
- 월수입 80만(년 1760만)
- 매가 1억7천(웅 9천, 보 1천)

★원룸형 오피스텔(쌍촌동)

- 윤천역 1번 출구 3분거리
- 원룸(10P)-매가 3400만(보200만월27만,웅1천)
- 원룸(11P)-매가 3500만(보200만월27만,웅1천)

(주)오천경매 대표, 최 선 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 상담후 분사 결정
- 공동 투자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낙찰 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 지급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 비용으로 처리

남 / 직원 모집 남 : 45세이하, 사무 및 기타
경매 관심 있는 분 환영 여 : 45세이하, 경리 및 기타
근무조건/급여는 상담후 결정